

2026. 03. 10. 12:56

화요일이네요. 어제는 아내가 집에 왔다 갔습니다. 저녁에 자고 가는줄 알았는데 저녁 8시 즈음에 갔습니다. 솔직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요즘 거의 혼자 지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조금 허전합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큰 문제없이 지내려고 하지만 잘 안되기도 하고... 운동같은 경우도 잘 하질 않고 하다말다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IC-9700도 주문하겠다 했고 이제 할 일이 많네요. 키착아도 하나씩 해결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베란다 브라켓의 위치도 조정하고 추가 설치도 하고 케이블도 깔고 샷시에 구멍도 내야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선국 검사도 받아야 하네요. 할 일이 생각하면 잔뜩 있는데 키착기도 하고... 하나씩 해야지오 뭐. 샷시에 구멍은 내기 싫으니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다시 TACO가 되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전쟁이 곧 끝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미국 증시는 시간외 급등을 하고 국제유가와 DXY가 하락했습니다. 아마 원인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유류 저장고 공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격을 예정하긴 했지만 너무 과했거든요. 결국 국제유가의 급등을 우려한 트럼프가 꼬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원하는 주식을 충분히 사지 못해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전쟁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세상은 엉망인데 무의미하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돈을 못 버는 것이 낫지요. 거기다 제 느낌이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제 2차 참수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전쟁을 끝내기에는 미국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니깐요. 전쟁으로 거의 10조를 썼는데 빈손으로 돌아갈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당분간 기다릴 생각입니다. 환율이 내리면 환전을 하고 자금을 축적하려고요. 그리고 가격이 싸졌을때 채권도 좀 사 놓으려고 합니다. 현재 주식자산이

너무 많거든요. 현재 채권 투자액 규모가 15%에 불과해서 시장 경기의 영향에 너무 취약합니다. BLV부터 \$10,000 정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후 BND를 \$20,000 정도 확보해야지요. 그럼 대략 \$40,000 까지 상승하겠네요.

그래도 좀 모자란 것 같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은니까요. 필요하다면 금을 팔아서 비중을 맞출 생각입니다. 투자는 생각보다 매우 손이 많아가는 일이네요.

오늘은 좀 있다 마케팅부와 동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광고지요. 이제 슬슬 경기도 회복되니 탈장 환자를 좀 늘리려고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니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광고를 한다고 무조건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니 까요. 아침부터 내내 이 촬영 때문에 신경이 쓰였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빨리 끝내고 잊고 싶네요.

그나저나 요즘 딸아이가 친구가 없어 걱정입니다. 똥통학교라서 그런가 딸아이가 친하게 지낼 사람이 없나봐요. 그나마 간신히 친해진 애도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저야 고등학교때 남들 다 무시하고 혼자 지냈는데 여자아이는 다르다고 하네요. 마음들 곳이 없으면 점심도 거르게 되다니. 정말 걱정입

